

다산학 42호 (2023.6) | 007~058

원대 오징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인식과 평가

이난숙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목차

- 서론
- 오징 역학에의 관심과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
-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긍정 평가
-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부정 평가
- 결론

1. 서론¹⁾

이 글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²⁾이 중국 원대元代 오징吳澄(1249~1333)³⁾의 『역찬언易纂言』에 관하여 논평한 『역학서언易學緒言』·『오초려찬언론吳草廬纂言論』을 중심으로 그의 인식과 역학 평가를 해명한 논문이다. 『역찬언』은 오징의 『주역』 주석서이고, 『역학서언』은 한대漢代부터 청대清代까지 중국역학 2천년사의 시대별 대표적인 역학 대가大家와 그들의 역학문헌에 담긴 해석 이론과 사상을 논평한 총 21편의 역학평론⁴⁾이 수록된 중국역학비평서이다. 『역학서언』에서 수많은 중국역학을 논의했지만, 정약용이 각 1편의 역학평론으로 중국역학대가를 논평한 중국학자는 10인이 있다. 해당 중국학자는 한대漢代 정현鄭玄, 위대魏代 왕필王弼, 진대晉代 한강백韓康伯,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 광경郭京, 송대宋代 주희朱熹, 소옹邵雍, 정형程迥, 원대元代 오징吳澄

1)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242)

2) 정약용丁若鏞(1762~1836): 조선후기 경학자로 자는 美庸, 호는 茶山, 俟菴, 籟翁, 苔叟, 紫霞道人, 鐵馬山人 등이다. 시호는 文度다. 정조 시대에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와 깊은 학문적 유대를 가졌다. 1801년 유배된 후 육경사서를 주석하고, 일표이서 등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경학에서는 특히 역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저술로는 『六經四書』 주석서, 『經世遺表』, 『欽欽新書』, 『牧民心書』, 『喪禮四箋』, 『周易四箋』, 『易學緒言』 등이 있다. 저술은 『與猶堂全書』, 『定本與猶堂全書』 등으로 편집되었다.

3) 오징吳澄(1249~1333): 원나라 경학자로 자는 幼清, 호는 草廬, 시호는 文正이다. 撫州 崇仁(현 江西省 崇仁縣) 출생으로 관직은 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저술로는 『五經纂言』, 『易纂言』, 『易纂言外翼』, 『易纂言外翼洛書說』, 『月令纂言』, 『月令七十二候集解』, 『春秋纂言總例』과 『莊子內篇訂正』, 『道德真經註』 등이 있다. 저술은 『吳文正公集』으로 편집되었다.

4) 정약용의 『易學緒言』에 수록된 21편의 역학평론은 「李鼎祚集解論」, 「鄭康成易註論」, 「班固藝文志論」, 「漢魏遺義論」, 「王輔嗣易注論」, 「韓康伯玄談考」, 「孔疎百一評」, 「唐書卦氣論」, 「朱子本義發微」, 「邵子先天論」, 「沙隨古帖駁」, 「吳草廬纂言論」, 「來氏易註駁」, 「李氏折中鈔」, 「陸德明釋文鈔」, 「郭氏學正駁議」의 중국역학평론과 「卜筮通義」, 「周易答客難」, 「茲山易柬」, 「茶山問答」 등이다.

과 명대明代의 내지덕來知德이다. 따라서 오징의 역학은 정약용이 원대 역학 가운데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논평한 역학이다.

오징과 정약용은 당대에 가장 대표적인 경학자이며, 자신만의 역학을 정립한 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징은 『오경찬언五經纂言』을 저술했으며, 역학에서는 여조겸呂祖謙의 고역古易 관본을 토대로 『역찬언』을 저술했다. 64괘를 주석하면서 오징은 괘변卦變과 효변爻變(=變爻)도 기록하고, 상象, 점占의 의미까지 해석하였다. 더불어 『역찬언외익易纂言外翼』 12편에서는 괘통卦統, 괘대卦對, 괘변卦變, 괘주卦主, 변괘變卦, 호괘互卦, 상례象例, 점례占例, 사례辭例, 변례變例, 역원易原, 역류易流 등의 해석방법론과 다양한 역례를 정리하였다.

조선의 대유大儒인 정약용은 육경사서六經四書를 주석했으며, 동시에 정치·경제·법학·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총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주역』 주석서는 『주역사전周易四箋』이며, 여기에 「역리사법易理四法」, 「사전소인四箋小引」, 「괄례표括例表」, 「역례비석易例比釋」 등 다산 역학의 요체가 되는 역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역학서언』에서는 중국역학 2천년사 가운데 영향력이 지대했던 시대별 역학대가를 비롯해 다양한 역학문헌이 집록된 문헌 가운데 학술적 영향력이 있었던 이론과 해석방법을 채록採錄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논평하였다. 이러한 각 역학평론에는 사辭, 변變, 상象, 점占의 성인사도聖人四道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역』 해석사례와 여러 해석방법론과 사상 및 훈고, 고증과 관련된 문헌의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약용의 두 역학문헌은 동아시아 역학사에서 학술적 의미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원대의 역학 경향을 살펴보면, 명유名儒 조복趙復이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이程頤, 주희朱熹 등의 송대宋代 경학을 전수했고, 역학에서는

주희(1130~1200)의 『주역본의周易本義』가 과거科擧의 표준주석서가 됨으로써 정주程朱 역학 가운데 주희 역학이 주요한 핵심적인 역학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고역古易 중심의 해석이론이 중시되었고, 유가적 의리역을 포함해 상수학象數學과 도상학圖象學까지 포괄적으로 그 해석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대에 성행했던 상수의 해석방법론까지 세밀히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송역에서 소홀했던 물상物象을 비롯해 변變·점占의 해석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대의 대표적인 역학자가 바로 오징이다.

오징의 역학은 고려高麗 말기부터 전래되었다. 조선朝鮮에 이르러서는 『왕조실록王朝實錄』을 비롯해 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서 임천오씨臨川吳氏(오징)의 역학을 논하였다. 오징 역학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조선후기 정약용은 「오초려찬언론」이라는 단일한 역학평론까지 저술한다. 정약용은 원대 역학자 가운데 오징을 중요한 학자로 주목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오징 역학을 ‘주희 역학을 추존한 상학象學’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징이 고대 『주역』의 원의原意를 복원하면서 「계사전」에 명시된 성인사도인 사辭·변變·상象·점占 모두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한 역학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것은 정약용이 『역찬언』에서 채록한 총 34종류 해석사례를 담은 「오초려찬언론」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약용은 이들 해석사례마다 긍정, 부정, 복합, 보류와 꺾의 등의 학술적인 평가를 했고, 자신의 견해를 수록한 역학평론을 저술하였다.

「오초려찬언론」 서두에서 정약용은 오징 역학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고, 동시에 역학평론을 저술한 의도를 직접 밝혔다.

오징의 저술 『역찬언』은 비록 그 본령이 소옹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그 사이에는 옛 해석방법에 합치되는 명론이 있다. 이에 백 가지 가운데 하나를 채록해 역학자들을 성원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⁵⁾

정약용은 오징 역학의 한계가 소옹邵雍 역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오징의 해석 가운데는 고법에 합치되는 명론名論이 있으며, 이를 성원聲援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백 가지 가운데 하나의 해석을 채록하였는데, 그것이 총 34종류의 해석 사례이다. 따라서 각 해석사례는 오징 역학의 특징이 되거나 정약용이 해석방법론과 『주역』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해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초려찬언론」을 상세하게 분석하면, 원대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인식과 역학 평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본고의 내용은 먼저 오징 역학이 한국에 들어와 관심을 가지고 논한 한국유학자와 그들의 역학문헌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오초려찬언론」에서 논한 구체적인 역례와 그 평가 및 내용을 사변상점辭變象占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는 정약용의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나누어 논평에 담긴 그의 인식과 역학 평가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오초려찬언론」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사학위논문 1편과 몇몇의 연구논문이 있다. 그러나 「오초려찬언론」 전체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일부분의 연구를 포함한 논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오초려찬

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0쪽). “著『易纂言』, 雖其本領不出邵氏之範圍, 而間有名論, 合於古法. 玆用采錄其百一, 以爲易家之聲援.”

언론」1편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초려찬언론」에서의 해석사례를 사·변·상·점 가운데 어떤 요소와 이론인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오초려찬언론」의 내용을 사·변·상·점의 요소로 구분해 분석하고, 이로써 정약용의 오징 역학에 관한 학술적인 평가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주역철학사』, 『중국역철학사』와 비교해 시기적으로 2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조선유학자에 의한 중국의 오징 역학에 관한 학술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오징 역학에의 관심과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

원대 역학은 정주程朱 리학理學을 학문적 종지로 삼은 조복趙復과 그 제자 허형許衡(1209~1281)과 유인劉因(1249~1293), 그리고 호일계胡一桂(생몰 미상)와 호병문胡炳文(1250~1333)과 동진경董真卿(생몰 미상) 등이 이 끝었다. 당시에는 북北에는 허형許衡, 남南에는 오징吳澄의 학문적 위상이 뛰어나 ‘북허남오北許南吳’로 불리었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오징 역학에 관하여 “경문의 뜻을 해석한 것은 문장이 간결하고 이치가 분명하며 예부터 전해진 이론을 두루 관통하였고, 또한 상당히 폭넓은 내용을 넉넉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을 해석한 원나라의 학자들 가운데 마침내 거벽巨擘이 되었다.”⁶⁾라고 평가하였다. 즉 오징이 원대 역학의 대가라는 평가이다.

6) 『四庫全書總目』 권4. “然其解釋經義，詞簡理明，融貫舊聞，亦頗賅洽，在元人說『易』諸家，固終爲巨擘焉。”

그러한 오징(臨川吳氏)의 역학은 고려 말기 한국에 전래되었다. 조선에서는 왕실을 비롯해 많은 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비롯해 권근權瑾(1352~1409), 이황李滉(1501~1570), 기대승奇大升(1527~1572), 이이李珥(1536~1584), 조호익曹好益(1545~1609), 김장생金長生(1548~1631), 허목許穆(1595~1682), 송시열宋時烈(1607~1689), 이익李穡(1681~1763), 임성주任聖周(1711~1788), 정약용丁若鏞(1762~1836) 등 여러 유학자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번역·출간된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전14권)⁷⁾에는 58명의 한국유학자의 역학문헌이 수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19명의 유학자의 『주역』 주석서에서 오징 역학을 논평한 내용이 발견된다. 그 19명의 유학자와 그들이 저술한 역학문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① 김 도金壽(?~1379: 고려후기)의 『주역천설周易淺說』
 - ② 권 근權近(1352~1409: 여말선초, 호 陽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③ 조호익曹好益(1545~1609: 호 三山)의 『역상설易象說』
 - ④ 김장생金長生(1548~1631: 호 沙溪)의 『주역周易』
 - ⑤ 송시열宋時烈(1607~1689: 호 尤庵)의 『역설易說』
 - ⑥ 임 영林泳(1649~1696: 호 滄溪)의 『독서차록讀書筭錄-주역』
 - ⑦ 이현익李顯益(1678~1717: 호 正菴)의 『주역설周易說』
 - ⑧ 유정원柳正源(1703~1761: 호 三山)의 『역해참고易解參攷』
 - ⑨ 김규오金奎五(1729~1791: 호 最高)의 『독역기의讀易記疑』

7) 한국주역대전 편찬실, 『한국주역대전』 전14권, 학고방, 2017;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과포털 『한국주역대전』 DB 참조 바람.

- ⑩ 조유선趙有善(1731~1809: 호 蘿山)의 『경의주역본의經義周易本義』
- ⑪ 김귀주金龜柱(1740~1786: 호 芝山)의 『주역차록周易筮錄』
- ⑫ 박제가朴齊家(1750~1805: 호 楚亭)의 『주역周易』
- ⑬ 강엄康儼(1766~1833: 호 謹庵)의 『리기집설理氣集說』, 『근암문집謹庵文集』
- ⑭ 이항로李恒老(1792~1868: 호 華西)의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
- ⑮ 심대윤沈大允(1806~1872: 호 白雲)의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⑯ 이진상李震相(1818~1886: 호 寒洲)의 『역학관규易學管窺』
- ⑰ 최세학崔世鶴(1822~1899: 호 惺巖)의 『주역단전괘변설周易象傳卦變說』
- ⑱ 이용구李容九(1868~1912: 자 大有)의 『역주해선헌易註解選』
- ⑲ 하우현河友賢(31세 단명: 호 予菴)의 『역의의易疑義』 등이다.

조선에는 『한국주역대전』에 수록된 58명의 유학자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역학문헌을 저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징 역학을 중요한 원대 역학으로 파악해 논의한 학자가 더욱 많을 것이다. 위의 19명의 유학자의 경우, 오징 역학의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 긍정, 부정 등의 평가와 자신의 견해를 통하여 논박한 내용이 많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대체로 긍정보다 비판적인 경향이 많아 보인다. 특히 비판적인 경향의 유학자로는 여말선초의 권근權近⁸⁾과 조선후기의 김귀주金龜柱가 돋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현대의 중국학자와 역대 중국문헌에서 오징 역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정약용의 평가와 비교하려 한다. 현대의 중국학자 료명춘廖名春·강학위康學偉·양위현梁韋弦은

8) 권근 역학에 관한 이기훈의 논문을 보면, 권근은 오징 역학이 고역을 복원하기 위한 역학이라고 했으며, 『周易淺見錄』에서 권근이 오징 역학을 비판한 점은 첫째,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둘째, 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셋째, 이단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하였다.(이기훈,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92집, 대한철학회, 2004, 265~276쪽.)

『주역철학사』에서 원대 역학을 4종류의 학풍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정주를 중주로 삼은 역학(趙焱의 『周易程朱傳義折衷』, 童真卿의 『周易會通』 등), 둘째 주희를 중주로 삼은 역학(吳澄의 『易纂言』, 胡一桂의 『周易本義附錄纂註』 등), 셋째 한역과 왕필 역학의 절충 혹은 정주 역학의 절충(朱熹의 『周易本義』는 소옹 역학의 절충, 胡炳文的 『周易本義通釋』과 熊良輔의 『周易本義集成』 등), 넷째 수리數理를 제외하고 순수한 의리로만 해석한 역학(曾貫의 『易學變通』 등)으로 분류하였다.⁹⁾ 이 가운데 오징 역학은 ‘주희 역학을 중심에 둔 역학’으로 분류되었다.

다음 주백곤朱伯崑의 『역학철학사』에서는 오징 역학의 세부적인 특징 3가지를 말하였다. 첫째 주희의 주석을 많이 따름. 둘째 복희의 괘상, 문왕의 효상과 괘·효사의 물상과 팔괘의 상등 취상설 중심. 셋째 태극을 리기합일理氣合一로 보고, 리선기후설理先氣後說을 배척함이라고 하였다. 또 주백곤은 오징 역학이 상수학과에 속하지 않는다¹⁰⁾고 했으며, 주희 역학을 수정했고, 명대에 리학理學이 기학氣學으로 전환되는데 선구자¹¹⁾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오징 역학이 수학보다는 상학에 중심 둔 역학이며, 주희 역학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청초淸初 황백가黃白家の 「초려학안草廬學案」에서는 “주자의 문인은 공부를 많이 하여 나름대로 설을 이루었지만, 경술經術에 깊이 통한 자는 아주 적었다. 초려의 『오경찬언』은 경술에 공이 있어 주희에게 이어지니, 북계北溪(宋의 陳淳, 1159~1223) 등이 미칠 바가 아니다.”¹²⁾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오징의 경술을 주희의 문인 가운데 탁월하다

9) 룡명춘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551~559쪽.

10) 주백곤 저,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5권), 소명출판, 2012, 24~25쪽.

11) 주백곤 저,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5권), 소명출판, 2012, 26쪽.

12) 룡명춘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555쪽.

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오징의 『역찬언외익易纂言外翼』에서 오징 역학을 총평하였는데, 『역찬언』 등은 ‘상象 하나로 분별한 역학’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때 『주역정의』를 확정한 이후부터 역은 마침내 왕필을 종주로 삼았고, 상수학은 오랜 기간 강학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오징은 『역찬언』을 지어 상 하나로 분별하였는데, 역사서는 그가 『주역』의 전주들의 천착을 물리쳤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역을 말하려는 자들이 이를 종주로 삼은 자가 많았다.¹³⁾

인용문에서는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의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도 여전히 왕필의 현학적 의리역학을 종주로 삼았기 때문에 상수역학이 오랫동안 쇠퇴하고 방치되었는데, 오징이 일어나 『역찬언』을 통하여 상象 하나로 일관된 역학을 정립했다고 하였다. 또 오징 역학은 역대 전주傳註에 있는 오류와 문제점의 천착을 물리쳐서 오징을 종주로 삼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위의 중국학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오징 역학은 ① 주희 역학의 추종, ② 상학, ③ 리기합일론, ④ 기학 전환의 선구자로 요약할 수 있다. ‘상학’이라는 특징은 주백곤과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말하였다. 이처럼 주로 오징 역학은 ‘주희 역학을 추존한 상학’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3) 『四庫全書總目』 권4. “自唐定『正義』, 易遂以王弼爲宗, 象數之學久置不講, 澄爲『纂言』一決於象, 史爲盡能破傳註之穿鑿, 故言易者多宗之.”(『四庫全書』文淵閣本 영인본, 驪江出版社, 1988)

그러나 중국학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세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오징이 『역찬언』과 『역찬언의익』을 통해서 괘효의 象은 물론이고, 점占, 變變을 포함해 辭辭를 원황히 해석하고자 한 역학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징이 주장한 卦變, 變效, 效卦는 象象만이 아니라, ‘變變’이 혼합된 해석이론이며, 오징은 각 효의 앞에서 점占을 특정해 주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오징 역학’을 ‘상학’으로만 한정하는 평가는 잘못이라고 본다. 그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오징 역학과 주희 역학의 차이점만을 부각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며, 오징이 송대 의리역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物象, 變, 點의 해석에 심혈을 기울인 역학이라는 점은 간과한 평가로 판단된다. 또한 物象의 원황한 해석을 위하여 오징이 凶고와 吉중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문장과 글자를 임의로 개자改字한 역학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200여 년 전, 정약용은 오징 역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을까? 「오초려찬언론」의 내용을 보면, 「계사전繫辭傳」과 「단전象傳」을 비롯해 송역의 도상설圖象說과 한역의 해석법이 망라되었다. 『주역』 64괘 가운데서는 17괘의 卦사, 효사와 物象 등의 해석을 채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총 34종류의 해석사례에 대해 정약용은 긍정, 부정, 복합, 疑의 등으로 평가하였다. 예컨대 긍정 평가로는 ‘해석과 뜻이 모두 좋다(釋義皆好)’, ‘뛰어나고 현명한 해석이다(超悟極)’, ‘오직 『역』에 깊은 자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唯深於易者, 能言之)’, ‘이것이 소위 내가 성원하는 바이다(此所謂聲援也)’, ‘이 해석이 지극히 옳다(此解極是)’라고 하였다. 부정 평가로는 ‘이 도상은 믿을 수 없다(此圖未敢信矣)’, ‘역학과의 이단이다(易家之異端)’, ‘경전의 의미와는 관련성이 없다(此於經義, 了無相涉者也)’,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不足憑也)’, ‘역괘를 희룡의 사물로 삼은 것이다(易

卦爲戲玩之物), ‘이것 역시 소옹의 옛 방법이다(此亦邵康節舊法也)’, ‘이정조의 옛 방법이다(卽李鼎祚舊法也)’, ‘애석하다.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함이여(惜乎, 其不加研也)’ 등의 신랄한 평가도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의 해석은 ‘어느 것이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未詳孰是)’, ‘또한 마땅히 꺾의해야 한다(且當闕疑)’라고 평가를 보류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해석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오징의 34종류의 해석사례에 대하여 긍정 평가 6회, 부정 평가 22회, 긍정과 부정의 복합 평가 3회, 이견 내지 평가 보류 평가 3회로써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사辭·변變·상象·점占의 4대 형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점占의 요소는 적은 편이다.

이제 「오초려찬언론」에 담긴 34종류의 해석사례의 내용을 사·변·상·점의 요소로 분류하고, 논평 내용과 정약용의 평가를 요약해 정리하면 <표1>과 같다.(일련번호는 분석을 위한 번호임)

<표1> 「오초려찬언론」에 논평한 오징의 해석과 정약용의 평가

	구분	성인 사도	해석 사례	논평 내용	평가
1	繫辭傳	사辭 상象	음·양의 획 ‘易有太極 是生兩儀’	▶복희의 획패법 ▶태극, 양의, 사상의 개념 ▶소옹의 가일매법 수용 문제	1. 부정 (근거 없다)
2	소옹의 도상설	상象	팔괘정위도 64괘방원도	▶도상의 문헌적 근거 ▶도상 전승과정·방기가 전래	2. 부정 (근거 없다)
3	乾卦 屯卦	상象 변變	乾 一之一, 屯 四之六 경팔순, 위팔순괘 벽괘와 연괘의 이론	▶팔괘의 명칭, 수리-소옹구법 ▶경팔순괘, 위팔순괘 ▶벽괘에서의 추이설	3. 부정 (역학파의 이단)
4	屯 解 蒙 蹇 家人 鼎 睽 革 頤 小過 大過 中孚	상象 변變	간변艮變, 진변震變 태변兌變, 손변巽變 감변坎變, 리변離變 등 괘변	▶괘변설, 위팔순괘 문제 ▶육자괘의 벽괘 문제 ▶이양괘의 주효主爻 문제	4. 부정 (역설의 단절, 역패를 회통함)

5	需卦 訟卦	사辭 상象	사양괘와 이음괘의 명칭 문제	▶사양괘 → 이음괘로 칭함 ▶한유부터 전승 오류	5. 부정 (사양괘, 이음괘)
6	泰卦 否卦	상象 변變	泰卦, 否卦의 경괘 명칭	▶經卦 8괘의 근거 문제	6. 부정 (교역 번역)
7	乾卦	사辭	‘元亨利貞’	▶원형이정-점사로서 해석 ▶훈고 해석	1. 긍정 (해석, 뜻 좋다)
8		사辭 점占 변變	초구, 구이 획과 효의 의미 효변	▶9九의 의미 ▶획과 효의 차이점 ▶구九와 효변	7. 부정 (효변, 엄밀성)
9		사辭 상象	초구 潛龍 물상의 해석	▶震卦 용을 상징 ▶물상의 해석 문제	2. 긍정 (뛰어난 해석)
10		사辭 변變	구삼 終日 상구 亢龍 호괘 3효변 離卦	▶효변법의 해석오류 지적 ▶사辭 해석-終日 日中 日昃 ▶항용의 언급은 없음	8. 부정 (독역 방법, 효변 오류)
11	坤卦	사辭	괘사 先迷后得主 육이 直方大不習 직방 直方的 계산	▶구절 바르다. ▶직방: 지구둘레와 지름 계산방법 이견	긍정+부정 (바르다/ 오류)
12	屯卦	사辭	초구 盤桓	▶경문의 훈고 해석은 천착	9. 부정 (천착)
13		사辭	육이 女子貞不字 『예기』 「곡례」 고증	▶자지 자의 훈고 해석 ▶곤坤 10의 數理 논평 없음	10. 부정 (자의 해석)
14		사辭 상象	구오 屯其膏	▶훈고와 취상取象의 문제	부정+긍정 (천착, 수용)
15	訟卦	사辭	괘사 有孚窒惕中吉終凶	▶표점과 해석 문제 ▶협운叶韻 해석 고려 - 「독역요지」 18칙 참조	11. 부정 (구절의 의미, 협운)
16	師卦	사辭	괘사 貞丈人吉 고증 문헌 문제	▶대인丈人, 장인丈人 해석 ▶훈고-『자하역전』 위서고증	12. 부정 (개자, 고증)
17		사辭	조육 師出以律否臧凶 고증 문제	▶협운叶韻 해석 문제 ▶『좌전』의 인용 잘못	13. 부정 (고증과 해석)
18		사辭	상육 小人勿用	▶단사와 상육 비교 해석 ▶역도易道에 관한 의견 ▶문자수정 오류 가능성	긍정+부정 (역에 깊은 자)
19	比卦	사辭 점占	괘사 不寧方來	▶易辭의 고증 해석 ▶고증 해석 추가	3. 긍정 (지극히 옳다)
20		사辭	구오 王用三驅	▶훈고 해석 ▶고증 해석의 오류 지적	14. 부정 (고증 해석)

21	小畜卦	사辭 상象 변變	괘사 密雲不雨	▶취상取象의 근거 ▶호체, 패변 해석 ▶상의 해석	15. 부정 (취상의 근거)
22		사辭	상구 尙得載婦貞厲 德→得 개자	▶경방, 우변, 『자하전』 고증 ▶덕德과 득得의 改字 문제	이건 - 평가보류
23	泰卦	사辭 상象	구이 包荒 상의 해석	▶황荒 자의 훈고 ▶구이의 효변 문제 ▶훈고 해석의 의문	16. 부정 (부정, 의문)
24		사辭 변變	육오 帝乙歸妹	▶호체법 긍정 ▶패변설의 정립 부족 지적 ▶양호패 -성원함	4. 긍정 (양호패 성원, 패변설 지적)
25	否卦	사辭 상象	육이 包承 육삼 包羞	▶훈고 해석의 문제 ▶효에 따른 상의 해석	17. 부정 (부정, 의문)
26		사辭 상象	구오 其亡其亡繫于苞桑 망亡 자 해석	▶패상의 상징 비유 ▶물상 해석	5. 긍정 (지극히 옳다)
27	豫卦	사辭 상象	구사 盍簪 상의 해석	▶패상 해석의 오류 ▶들을 합하는 의미	18. 부정 (상 해석)
28	觀卦	사辭 상象	육사 利用賓于王 효변, 물상 해석	▶효변, 물상 해석의 문제 ▶한위구가漢魏九家에 없음	19. 부정 (근거 부족)
29	噬嗑卦	사辭 상象	괘사 利用獄	▶리离의 패상 해석 문제 ▶육獄의 상 해석 오류	20. 부정 (근거 부족)
30	復卦	사辭 변變	上六之末	▶효변爻變과 불변不變 ▶『독역요지』 유동留動 관련 ▶탄식: 빗장의 자물쇠를 부수고 방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	21. 부정 (연구 부족)
31	夬卦	사辭 상象	구오 見陸夬夬	▶물상 해석 ▶현覿 자 훈고	부정+긍정 궤의(이건)
32	震卦	사辭	육이 億喪貝	▶억億 자 훈고, 『한서』 고증 ▶『논어』 고증과 해석	6. 긍정 (해석 좋다)
33	渙卦	상象	구이 奔其机	▶궤机자의 물상 해석 ▶효변, 호체, 물상의 해석법	22. 부정 (억지 해석)
34	彖傳	사辭 상象	단象 자의 의미 물상 해석	▶象은 계보 돼지머리 ▶象은 6체體의 머리	오·정 이견

〈표1〉의 내용은 「계사전」과 「단전」의 역사易詞와 복희의 획괘와 작역 방법에 관한 논평과 소옹의 도상설과 가일배법 및 괘변, 호체, 효변, 물상, 팔순괘의 한대 역설을 논평하고 있다. 더불어 자의와 개자, 그리고 물상을 해석한 훈고와 고증에 관한 시비是非가 있다. 64괘에서 가운데 논평한 17괘에는 건괘乾卦, 곤괘坤卦, 준괘屯卦, 수괘需卦, 송괘訟卦, 사괘師卦, 태괘泰卦, 비괘比卦, 소축괘小畜卦, 미괘否卦, 예괘豫卦, 관괘觀卦, 서합괘噬嗑卦, 복괘復卦, 괘괘夬卦, 진괘震卦, 환괘渙卦의 괘효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정약용이 정립한 「독역요지讀易要旨」 18원칙 가운데 찰운察韻인 협운叶韻과 유동留動에 관한 세밀한 논평도 포함되었다.

〈표1〉의 논평을 통해서 나타난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역학개념과 작역방법 : 畫·爻, 太極·兩儀·四象·八卦의 분화
2. 송역의 수용 : 소옹의 도상설 및 수리 해석의 수용 문제
3. 송역의 해석 : 작역 방법의 추론, 가일배법加一倍法の 이해
4. 한역의 수용 : 경팔순괘와 위팔순괘, 상수역학에 관한 안목 문제
5. ‘變’ ‘象’의 해석법 : 효변, 추이, 호체의 해석
6. ‘辭’의 해석 : 『주역』의 자의, 改字, 훈고와 고증 문제
7. ‘象’의 해석 : 『주역』의 취상, 물상의 훈고와 고증 해석 문제
8. 독역요지讀易要旨 : 찰운叶韻과 유동留動¹⁴⁾의 해석에 관한 연구 부족

14) 정약용의 「독역요지」 18원칙은 추상抽象, 해사該事, 존질存質, 고명顧名, 파성播性, 유동留動, 결본缺本, 용줄用拙, 쌍소雙溯, 첩현疊現, 비덕比德, 영물詠物, 건유建維, 변위辨位, 우의寓義, 고점考占, 인지認字, 찰운察韻의 18가지 원칙을 말한다. 이 가운데 협운은 찰운에 해당된다. 유동은 한 획이 변동하면 전괘全卦가 변하는데, 성인이 효사를 지을 때 그

정약용은 이러한 오징 역학에 관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구체적인 해석사례에 관한 역학평가를 남겼다. 이에 정약용의 역학 인식과 평가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로 나누어, 각각에 담긴 정약용의 인식과 평가의 특징을 다음 장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3.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긍정 평가

정약용의 긍정 평가는 <표1>의 7, 9, 19, 24, 26, 32로 총 6회의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태괘泰卦 육오六五 ‘제을귀대帝乙歸妹’(24)의 상象·변變 해석인 호체법互體法. 둘째, 건괘乾卦 괘사 ‘원형이정元亨利貞’(7)과 진괘震卦 육이 ‘억상패億喪貝’(32)의 사辭 해석. 셋째, 건괘乾卦 초구 ‘잠용潛龍’의 용龍(9)과 비괘否卦 구오 ‘기망기망계우포상其亡其亡繫于苞桑’(26)의 망亡, 포상苞桑의 사辭·상象의 해석. 넷째, 비괘比卦 괘사 ‘불영방래不寧方來’(19)의 사辭·점占 해석이 해당된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오징의 태괘 육오 ‘제을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니, 복이 있고 크게 길하다(帝乙歸妹, 以祉元吉)’의 효사 해석을 정약용은 호체, 괘변을 함께 언급하면서 호체법 해석을 명론名論으로 평가하였다.

태괘泰卦의 호체와 괘변은 모두 귀매괘歸妹卦를 만들므로 귀매歸

승강왕래의 상황에서 모두 변상을 취했지만, 패주卦主人 효는 변동을 유보하여 변화를 쫓지 않고 추이의 본상만을 이용하여 그 획이 패주가 된다는 것이다. 예로써 사괘師卦 구이 ‘王三錫命’과 비괘比卦 구오 ‘王用三驅’가 있다.(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소명출판, 2012, 108~109쪽.)

妹를 ‘사辭’로 하였다.¹⁵⁾(오)

모름지기 괘변설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귀매괘 육오에서 ‘제율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다’를 말했고 이(태괘) 육오 또한 ‘제율귀매’를 말했으니, 다만 양호兩互로서 보았음이 마땅하다. 육오가 이미 그러하니 ‘나는 뜻이 부富하지 않고(육사)’ 역시 귀매괘로 봄이 마땅하다. 이것이 소위 내가 성원하는 바이다.¹⁶⁾(정)

정약용은 오징이 해석한 호체설이 고법에 합치되며, 괘변설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태괘 구오의 ‘귀매歸妹’는 사辭·상象의 해석인데, 오징은 태괘의 호체가 귀매괘라고 하고, 양호작괘兩互作卦로 해석하였는데, 이를 고대의 해석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호체법은 일반적으로 육효 가운데 2·3·4효의 하호괘下互卦, 3·4·5효의 상호괘上互卦를 가지고 괘를 새롭게 만든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호체법’에 관해서는 정약용의 『주역사전』·「호체표직설互體表直說」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괄례표括例表」에서 호체법의 종류인 대호大互, 겸호兼互, 도호到互, 위복位伏, 반합牌合을 정리하고, 대체大體, 겸체兼體, 도체到體, 복체伏體, 반합牌合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양호작괘표兩互作卦表」에서는 “태괘泰卦(䷊), 고괘蠱卦(䷑), 대축괘大畜卦(䷙), 승괘升卦(䷭)의 양호괘가 귀매괘歸妹卦(䷵)가 된다.”¹⁷⁾라고 하였다.

1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解曰 泰卦互體及卦變, 皆成歸妹, 故以歸妹爲辭.”

16)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評曰 不須作卦變說. 歸妹六五曰 帝乙歸妹, 此六五亦曰 帝乙歸妹, 則但當以兩互看也. 六五既然, 則翩翩不富亦當作歸妹看, 此所謂聲援也.”

17)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1권, 소명출판, 2007, 64~73쪽. “歸妹, 泰蠱大畜升之兩互.”(다양한 호체법에 관해서는 『주역사전』의 「괄례표」 참조)

더불어 정약용은 “두 호괘로 새로운 괘를 만드는 것은 이미 호체를 취하면 자연히 괘를 이루는 것이지, 억지로 교묘하게 꾸며낸 것은 아니다.”¹⁸⁾라고 했으며, ‘양호작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이러한 정약용의 인식을 보면, 근본적으로 태괘(䷊)의 호체가 귀매괘(䷋)인데, 오징이 태괘 육오의 ‘제을귀매’와 귀매괘 육오의 ‘제을귀매’ 효사를 연관시켜 서로 양호괘兩互卦로 해석한 점을 명론으로 판단한 것이다.²⁰⁾

만면 오징이 태괘 구오 ‘제을귀매’에서 말한 괘변설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부정 평가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의 부정 평가에서 다룬다. 정약용은 이 해석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를 모두 했지만, 호체법을 성원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므로 분류에서는 긍정 평가에 포함시켰다.

호체법이 활용된 역사는 깊다. 『좌전左傳』에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한대의 경방京房 역학에서도 호체법이 보인다. 경방은 “역에는 2·3·4호가 호체가 되며, 3·4·5효는 약상約象이 된다.”²¹⁾라고 하여 하호괘를 호체, 상호괘를 약상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약상’이란 용어는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다. 호체법과 관련하여 정약용은 『춘추좌전』에 있는 진완

18)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1권, 소명출판, 2007, 83쪽. “兩互作卦者, 既取互體, 自然成卦, 非苟爲是工巧也.”

19)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1권, 소명출판, 2007, 85-88쪽. 『周易傳義大全』에서는 오징의 『역찬언』 해석을 “臨川吳氏曰, 六五以柔中, 應在下之剛中, 帝女下嫁從夫之象. 泰卦互體及卦變皆成歸妹卦, 故以歸妹爲辭. 按, 京房傳載湯歸妹之辭曰, 无以天子之尊而乘諸侯, 无以天子之富而驕諸侯, 陰之從陽, 女之順夫, 天地之義也. 往事爾夫, 必以禮義. 其辭雖善, 要是後世好事者, 假托爲之, 或乃因是遂指帝乙爲湯, 而謂非受辛之父者, 惑矣.”라고 기록하였다.

20) 양호작괘법에 관해서는 방인, 「다산의 양호작괘법」, 『다산학』 제3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7 참조바람.

21) 『경방역전』. “二三四爲互體, 三四五爲約象.”

陳完(陳敬仲)의 점사를 호체법의 근거라고 하였다.²²⁾ 또 정약용은 주희가 “호체를 폐지할 수 없다.”(“互體不可廢.”)라고 했으며,²³⁾ 호병문胡炳文과 홍매洪邁도 호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하였다.²⁴⁾ 이러한 호체법은 중국과 한국의 많은 유학자들이 활용한 바 있다.²⁵⁾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오징의 호체법을 고법古法의 해석방법론에 근간을 둔 해석으로 판단했으며, 자신 또한 역리사범 가운데 호체법을 수록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둘째, 건괘乾卦 괘사 ‘원형이정元亨利貞’과 진괘震卦 육이 ‘억상패億喪貝’에 관한 오징 해석에 관하여 정약용은 ‘해석의 뜻이 좋다’고 긍정 평가하였다.

⑦ 건괘乾卦 괘사 元亨利貞

— “해석한 뜻이 매우 좋다.”(“釋義皆好.”)(정)

-
- 22)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7권, 소명출판, 2007, 160쪽. 「춘추관점보주」 참조.
- 23)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1권, 소명출판, 2007, 27쪽. “互體, 朱子曰互體不可廢, 又曰 左傳分明用互體.”
- 24) 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 제1권, 소명출판, 2007, 75쪽. 호괘법은 64~88쪽.
- 25) 호체법을 사용한 중국학자는 1. 경방京房(B.C.77~B.C.37?), 2. 정현鄭玄(127~200), 3. 우번虞翻(164~233), 4. 주희朱熹(1130~1200), 5. 호일계胡一桂(1247~?), 6. 호병문胡炳文(1250~1333), 7. 후제후씨厚齋馮氏, 8. 주진朱震(1072~1138), 9. 유염유琰(1258~1327), 10. 정역동丁易東(생몰 미상), 11. 오징吳澄 등이 있다. 한국학자는 홍여하洪汝河(1620~1674)의 『問易·讀書簡記·周易』, 김만영金萬英(1623~1649)의 『易象小訣』, 이익李瀾(1681~1763)의 『易經疾書』, 심조沈澹(1694~1756)의 『易象筭論』, 유정원柳正源(1703~1761)의 『易解參攷』, 김상악金相嶽(1724~1815)의 『山天易說』, 김규오金奎五(1729~1791)의 『讀易記疑』, 김귀주金龜柱(1740~1786)의 『周易筭錄』, 정약용丁若鏞의 『周易四箋』과 『易學緒言』, 백경해白慶楷(1765~1842)의 『讀易』, 김기례金箕禮(1796~1854)의 『易要選義綱目』, 이진상李震相(1818~1886)의 『易學管窺』, 박문호朴文鎬(1846~1918)의 『經說周易』, 강엄康儼의 『周易』 등에서 호체법을 언급하거나 해석에 활용하였다.

원형에서 원元은 머리이다. 문자로서 사람의 위도 원元이니, 사람 한 몸의 위에 있는 것이 여러 몸체의 머리다. 형亨 자는 헌향 獻亨의 향 자와 동일하다. 백 가지 아름다움이 갖추져 모임은 마치 향례에 온갖 아름다운 물건을 구비함과 같다. 이정에서 이利란 일에 마땅함으로 칼로 벼를 베는 것과 같다. 정貞이란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나무 기둥이 되는 줄기가 바르고 견고한 것과 같다.'²⁶⁾(오)

㉓ 진괘震卦 육이 億喪貝(재물 잃을 것을 헤아려)

— “이 해석이 가장 좋다.”(“此解最好.”)(정)

억億은 옛적에 ‘괘역지희詭億之戲’가 있는데 ‘억’은 동전의 수를 헤아려서 그 맞혔는지 틀렸는지를 비교하여 서로 금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이다. 『후한서』·『량기전』의 주에서는 요즘攤錢과 같다고 하였다.²⁷⁾(오)

오징은 건괘 ‘원형이정’의 해석에서 “원은 머리, 형은 제사지내다, 이는 마땅함으로 결정하다, 정은 정간楨幹이 바르고 견고하다.”라고 하였다. 반면 정약용은 『주역사전』에서 “형은 통한다는 뜻이니, ‘감응하여 마침내 통한다(感而遂通)’ …… 정은 바름이니 바른 데 머물면서 일을 주관한다.”²⁸⁾라고 하였다. 두 학자의 해석을 비교하면, 정약용이 형亨을

26)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乾元亨, 解曰 “元, 首也. 文人上爲元, 在人一身之上爲衆體之長. 亨字, 與獻享之享同. 百嘉聚會, 如享禮衆美之物具備也.” 利貞, 解曰 “利者 宜於事 如刀之刈禾. 貞者, 主其事, 如‘木之楨幹, 正而固’也.”

27)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9~200쪽). “震, 六二. 億喪貝, 解曰 “億者, 古有詭億之戲, 億度錢貨之數, 較其中否, 以相賭賽也. 『後漢·梁冀傳』 註云, 若今攤錢也.”

28) 정약용 저, 방인·장정옥 역, 『역주 주역사전』(제1권), 소명출판, 2007, 231~232쪽.

감통感通이라고 해석했지만, 오징이 현향의 향亨으로 해석한 것이 ‘뜻이 매우 좋다’고 긍정 평가한 셈이다.

건괘乾卦 괘사 ‘원형이정’의 해석은 다양하다. 송대 대표적인 학자들 예로 들면, 송대 정이程頤는 “원형이정은 네 가지 덕(四德)을 말한다. 원은 만물의 시작이요, 형은 만물의 자라남이요, 이는 만물의 이름이고, 정은 만물의 완성이다.”²⁹⁾라고 하였다. 주희朱熹는 “원형이정은 문왕이 붙인 말로 한 괘의 길흉을 결단하는 것이니, 이른바 단사이다. 원은 큼이요, 형은 통함이요, 리는 마땅함이요, 정은 바르고 굳음이다.”³⁰⁾라고 하여 두 학자의 견해 차이도 크다. 두 경향성 가운데 주희와 오징, 그리고 정약용은 ‘원형이정’을 길흉을 단정하는 서법筮法에 근원을 둔 주사繇辭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경향성이 일치한다.

다음 진괘震卦 육이 역상패億喪貝의 해석에서 오징은 『후한서』를 근거로 해석했고, 정약용은 『논어』를 근거로 고증하였다. 정약용은 “재물을 늘리는 집안은 이로움과 해로움을 예측하곤 하는데, 어떤 때는 재물을 잃으면 또한 재물을 잃을까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징의 해석을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³¹⁾

셋째, 건괘乾卦 초구 ‘잠용潛龍’의 용龍과 비괘否卦 구오 ‘기망기망계우포상其亡其亡繫于苞桑’의 망亡과 포상苞桑에 관한 해석이다. 이는 사辭와 물상物象의 해석에 해당된다.

29) 『周易傳義』(上), 전통문화연구회, 2009, 146쪽. 程頤: “元亨利貞, 謂之四德, 元者萬物之始, 亨者萬物之長, 利者萬物之遂, 貞者萬物之成.”

30) 『周易傳義』(上), 전통문화연구회, 2009, 147쪽. 朱熹: “元亨利貞, 文王所繫之辭, 以斷一卦之吉凶所謂象辭者也. 元大也. 亨通也. 利宜也. 貞正而固也.”

31)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200쪽). “案 此解最好. 但三代之時, 亦有億錢之戲否, 未可知也. 子謂子貢曰, ‘億則屢中.’ 又曰, “不億不信.’ 貨殖之家, 億度利害, 或喪其財, 則亦億喪貝也.”

⑨ 건괘乾卦 초구 潛龍

— “순구가가 해석한 것과 비교하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현명함이 지극하다.”,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깨달음이 지극하다.”(정)

진震은 용이다. 양획이 비록 진괘의 체를 갖추지 못해도 모두 용을 상징할 수 있다.³²⁾(오)

⑩ 비괘否卦 구오 其亡其亡繫於苞桑

— “이 해석이 지극히 옳다.”(“此解極是.”)(정)

망亡은 ‘잃다’의 뜻이다. 말 한 필을 잃어버리고, 『장자』에서 ‘양을 잃어버리다’라는 구절의 ‘잃다’의 뜻과 같다. 대인은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며 “그 잃어버릴까 그 잃어버릴까 하여 뽕나무에 매다.” 하고 말한다면, 오직 그것을 땀는데도 단단하지 않아서 혹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삼감의 지극함이다.³³⁾(오)

오징의 건괘 초구 ‘잠용’ 해석을 정약용은 “그것을 순구가가 건괘가 용龍이 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현명함이 지극하다.”³⁴⁾라고 평가하였다. 즉 순구가가 행한 물상 해석에 비하여 오징

32)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4쪽). “潛龍. 解曰 震爲竜, 陽畫雖不具震體, 皆可象竜.”

33)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其亡其亡, 繫於苞桑. 解曰 ‘亡, 失也. 與馬匹亡及『莊子』亡羊之亡, 同. 大人者, 安不忘危. 如有一動物, 恐其亡曰, ‘其亡矣, 其亡矣, 繫於苞桑.’ 唯恐繫之不固, 而或至走逸, 慎之至也.”

34)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4쪽). “評曰, 比之荀九家之以乾爲龍, 超悟

의 물상 해석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인 것이다.

다음 오징의 비괘否卦(䷋) 구오 ‘기망기망계우포상’의 해석에 관하여 정약용은 “해석이 지극히 옳다. 비괘에는 근본적으로 건괘乾卦의 말, 곤괘坤卦의 소가 있고, 효변하면 진괘晉卦(䷢)가 되니, 손괘巽卦의 나무, 리괘離卦의 그루라서 곧 뽕나무 밀동이 되어 맺 수가 있다. 그것을 간괘艮卦의 오이의 뜻과 비유하면, 오히려 도리에 맞는 것 같다.”³⁵⁾라고 긍정 평가하였다.

넷째, 비괘比卦 괘사 ‘불영방래不寧方來’는 사辭·점占의 해석이다.

⑩ 비괘比卦 괘사 不寧方來

— “이 뜻이 지극히 옳다.”(“此義極是.”)(정)

『고공기』³⁶⁾에서는 “오직 너는 편안한 제후이니, 혹시라도 너는 편안하지 못한 제후처럼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대개 제후가 조공을 받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점은 ‘전에 편안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와서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다.’³⁷⁾(오)

오징은 『주례』 「고공기考工記」를 고증해 ‘불영방래’를 해석하고 있다. 정약용은 이러한 “뜻이 지극히 옳다. 비比는 만국을 세우고 제후와 친해지는 괘이다. 『의례』 「근례觀禮」에서는 ‘백부伯父, 무사히 돌아가 그

極矣.”

3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案 此解極是. 否卦元有乾馬·坤牛, 爻變爲晉, 則巽木·离科, 卽爲苞桑, 是可繫也. 比之良瓜之義, 却似理順.”

36) 「考工記」는 『주례』 6편 가운데 마지막 편인 「冬官」에 속해 있다.

37)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6쪽). “比, 不寧方來, 解曰 “『考工記』曰, ‘唯若寧侯, 母或若女不寧侯.’ 不寧, 蓋諸侯之不朝貢者. 其占爲前時不寧之國, 今且來朝.”

대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라고 했으며, 『서경』 「문후지명(文侯之命)」에서는 ‘돌아가 너의 나라가 편안하게 하라’라고 했으니, 명(命)을 받아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을 령(寧)이라 한다. 명을 받지 못한 것은 불령(不寧)이라고 한다.³⁸⁾라고 평가하였다. 즉 『주례』, 『의례』와 『서경』의 문장을 고증하여 해석한 오징의 해석을 정약용은 ‘뜻이 지극히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약용은 이처럼 오징의 6회의 해석사례를 긍정하였다. 정리하면, 첫째, 상·변의 해석법인 호체법은 명론. 둘째, 원형이정은 “해석한 뜻이 매우 좋다.” 셋째, 역상패는 “이 해석이 가장 좋다.” 넷째, 잠용은 “순구가 해석한 것과 비교하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현명함이 지극하다.”,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깨달음이 지극하다.” 다섯째, 기망기망계 우포상은 “이 해석이 지극히 옳다.” 여섯째, 불영방래는 “이 뜻이 지극히 옳다.”³⁹⁾라고 사(辭), 변(變), 상(象), 점(占)의 다양한 해석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긍정과 부정을 복합해 평가하거나 평가를 결의(闕疑)한 해석이 있다. <표1>의 11, 14, 18로 3회의 해석은 복합된 평가를 하였고, 이견이나 해석의 보류, 결의한 사례는 <표1>의 22, 31, 34로 3회의 해석이 해당된다. 그 사례를 들면, 오징 역학에서는 개자(改字)한 특징이 있는데, 소축괘(小畜卦) 상구 ‘상덕재(尙德載)’에서 덕(德) 자를 득(得) 자로 수정하였다.⁴⁰⁾ 오징이 ‘상득재(尙得載)’로 문장을 고쳤지만, 정약용은 본래

38)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6쪽). “評曰, 此義極是. 比者, 建萬國・親諸侯之卦也. 『觀禮』曰: “伯父無事, 歸寧乃邦.” 『文侯之命』曰, “歸寧爾邦.” 凡受命安民, 謂之寧. 其不受命者, 謂之不寧.”

39)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0~200쪽).

40) 오징이 경문을 개자(改字)한 사례는 룡명춘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557~558쪽 참조 바람

의 덕德자와 수정된 득得자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고 평가를 보류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오징 : 조씨가 말하길 “경방과 우번과 「자하전」에서는 모두 ‘득得’이라고 썼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따른다.⁴¹⁾

정약용 : 내가 생각하건대 공자는 「상전」에서 “덕은 쌓여 가득차다.”라고 했다. 載 자에서 구절을 끊었으니, 진실로 옳다. ‘지 어미가 바르다’는 부인의 일로서 ‘여인의 곧음은 부인의 곧음’과 같다. ‘덕德’을 ‘득得’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⁴²⁾

오징이 득得자로 개제한 근거는 경방京房, 우번虞翻, 『자하전子夏傳』의 해석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주역』이 분서갱유焚書坑儒 등의 우환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주역』 경문이 잘 전승되었다고 보는 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의 개자 부분을 공자가 「상전」에서 덕德이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것이 옳은지는 상세하지 않다고 그 평가를 보류하였다.

41)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上九, 尙得載【句】 婦貞厲【句】. 晁氏曰 “京房虞翻『子夏傳』, 皆作得.” 今從之.”

42)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案 孔子「象傳」曰: “德積載也.” 載字爲句, 良是也. 婦貞者, 婦人之事, 猶言女貞, 婦人貞也. 德之與得, 未詳孰是.”

4.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부정 평가

정약용의 부정 평가는 <표1>의 1, 2, 3, 4, 5, 6, 8, 10, 12, 13, 15, 16, 17, 20, 21, 23, 25, 27, 28, 29, 30, 33 등 총 22회의 해석이다. 22회의 부정 평가는 6회의 긍정 평가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정약용은 오징 역학 가운데 명론의 해석을 찾아 성원하고자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징 역학에는 그 한계와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이 부정 평가한 오징의 해석사례 22회를 요약해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역학 개념 : 음·양의 획, 태극·양의·사상·팔괘, 획과 효, 9와 6
2. 소옹의 도상설 수용 : 「팔괘정위도」, 「육십사괘방원도」의 근거 문제
3. 소옹의 역설
: 팔괘의 수리, 작역 방법과 괘의 형성설, 가일배법의 이해 문제
4. 한역의 상수역학 이론 : 경팔순괘와 위팔순괘의 수용 문제
5. 오징의 괘변설 : 벽괘의 설정 문제
6. 사양괘와 이음괘의 명칭 : 「계사전」 이해 문제
7. 易詞의 훈고 해석 : 자의
8. 훈고와 고증 해석 : 사辭, 개자
9. 독역요지 : 찰운야韻과 유동 등 세부적인 해석방법
10. 취상과 물상 해석 : 훈고와 고증의 이해 문제

정약용은 오징 역학의 주석에서 송역과 한역의 이론 수용과 그 안목을 집중적으로 논평하였다. 송역에서는 소옹의 선천역학으로 도상설과

작역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했으며, 한역에서는 경팔순괘와 위팔순괘, 그리고 괘변설, 효변설, 호체설의 수용과 그 이론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평하였다. 또한 물상 해석의 근거인 훈고와 고증의 주장도 세심히 살폈으며, 자의 해석과 개자, 「독역요지」 18원칙[찰운察韻(叶韻)과 유동留動]에 부합되는 해석도 살펴서 논평하였다. 특히 ‘유동’의 해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약용이 “자물쇠를 부수고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 애석하도다!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함이여!”⁴³⁾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면 정약용이 부정 평가한 오징의 22회 해석사례 가운데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역학 개념의 정의: 획, 효, 태극, 양의, 사상

① 역유태극易有太極 시생양의是生兩儀(1)의 해석

소옹은 음양 → 사상 → 팔괘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이제 —(양), --(음)이 양의가 되고, ==, ==, ==, ==이 사상이 된다고 함은 『대전(=계사전)』의 문장과 더불어 판단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 반드시 음, 양의 큰 획을 가로로 놓고서 이를 근간으로 삼았겠는가? 이것은 모두 정설이 될 수는 없다.”⁴⁴⁾라고 하였다. 또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으며, 이 때문에 선유는 억지로 복희 황제가 획

43)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9쪽). “然草廬此說, 幾乎破局鎖, 而入宣奧. 惜乎, 其不加研也!”

44)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0쪽). “今以一 --爲兩儀, == == ==爲四象, 與『大傳』之文, 判不相合. 且義皇畫卦之時, 無見之者, 先作==, 次作==, 有何不可, 必橫列陽陰之大畫, 以作根基哉? 斯皆未可定之說也.”

괘한 방법이 양兩(양의)과 사四(사계절)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가 둘을 생한다는 것은 하나를 나누어 둘로 삼은 것이지, 태극의 밖에 추가로 각각의 하늘과 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태극이 나뉘어 천지가 됨】 양의가 사상을 낳는다는 것은 둘을 나누어 넷이 된 것이지, 천지의 밖에 추가로 각각 네 기氣를 내놓은 것이 아니다.【이제 이른바 二陽二陰이라 함】 넷이 여덟을 생한다는 것은 넷을 나누어 여덟이 된 것이지, 네 기의 밖에 각각 천·지·수·화·뇌·풍·산·택을 더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다.”⁴⁵⁾라고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정약용이 일생이법一生二法을 내포內包의 개념으로 본 것이지 소옹처럼 한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일배加一倍적 발생發生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오징이 소옹의 「팔괘차서도」 관련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하여 정약용은 도상론에 관한 안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부정 평가하였다.

다음은 획劃과 효爻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예를 들면 건괘 초구와 구이(8) 해석에서 오징은 “초구는 ‘처음 획이 9를 얻으면 건지구乾之姤가 된다.’ 구이는 ‘9가 제2획에 자리한 것으로 건지동인乾之同人이 되는 것’을 말한다.”⁴⁶⁾라고 하였다. 건지구, 건지동인은 효변을 뜻한다. 그런데 오징은 초구를 처음 획, 구이를 제2획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약용은 오징이 9라는 사상수四象數의 뜻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9가 효변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강획剛畫이라고 칭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4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0쪽). “天地之理, 一生兩, 兩生四, 故先儒強以義皇畫卦之法, 爲兩·四之象. 然一生兩者, 分一而爲兩, 非於太極之外添出個天地也.【太極之分爲天地】. 兩生四者, 分兩而爲四, 非於天地之外添出個四氣也.【今所云二陽二陰】四生八者分四而爲八, 非於四氣之外添出個天·地·水·火·雷·風·山·澤也.”

46)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4쪽). “初九曰 初之畫得九, 爲乾之姤. 九二曰 九居第二畫, 爲乾之同人.”

약용은 괘를 변하게 하는 것이 효이며, 효는 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9자의 뜻이 명확히 세우지 않고, 오직 강획을 9로 삼았으니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여섯 획이 모두 7이면 그 괘가 변하지 않기에 단사로서 점친다. 혹 9를 얻으면 그 괘가 드디어 변한다. 괘를 변하게 함을 효라 말하며, 효는 획이 아니다.⁴⁷⁾

‘획’이란 단순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효’는 “효는 변을 말한다.”⁴⁸⁾라고 한 「계사전」의 설명을 포함해 9와 6은 ‘효변’을 의미하는 수가 된다. 설시법에 의해 6(六)과 9(九) 등의 효가 결정되고, 64괘 384효에 펼쳐진 그 효들을 오징은 ‘처음 획’ 또는 ‘제2획’라고 칭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효변을 이미 알고 있는 오징이 효의 명칭에 있어서는 표현이 적확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정약용은 이처럼 9와 6을 반드시 효라고 칭해야 한다고 획과 효의 개념 사용에도 엄격하였다. 이는 정약용이 『주역』을 주석함에 있어서 의미가 분명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엄밀히 구분하여 기록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소옹의 도상 수용 : 「八卦定位圖」, 「六十四卦方圓圖」(2)

오징은 『역찬언』의 권수卷首에 「팔괘정위도」와 「64괘방원도」의 두 도

47)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4쪽). “評曰 九字之義, 無所建明, 唯以剛畫爲九, 何以解矣? 六畫皆七者, 其卦不變, 占之以象詞. 其或得九者, 其卦遂變, 變卦謂之爻, 爻非畫也.”

48) 「계사전」 上, 3장. “爻者, 言乎變者也.”

상을 수록하고, 그 유래와 전승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오징의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팔괘정위도」, 「64괘방원도」 두 그림은 소옹이 이지재 정지에게 그것을 얻고, 이지재는 목수 백장에게서 그것을 얻었으며, 목수는 희이 선생 진단 도남에게서 그것을 얻었다. 대개 복희 황제가 이 두 그림을 그렸는데 유학자들이 전하지 않다가, 방기가⁴⁹⁾에서 그것을 전함으로써 수양과 화후(연단술)의 규칙으로 삼았다.⁵⁰⁾(오)

복희가 괘를 그릴 때, 먼저 두 큰 획을 긋고 다음에 네 중획을 만들었다는 것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두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보았는가? 『구구』·『팔색』·『삼분』·『오전』,⁵¹⁾ 육경사서도 모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복희 이래 비밀리에 단독으로 방기에게 전해주고 이로써 화후를 살폈다니, 괴이한 일이 아닌가? 진단은 복희의 친 제자도 아니니, 이 도상은 감히 믿을 수 없다.⁵²⁾(정)

49) 『漢書·藝文志』, “方技者, 皆生生之具, 王官之一守也. 太公有岐伯, 俞拊, 中世有扁鵲, 秦和 …… 漢興有倉公.” 自『新·旧唐書』至『明史』都有方技傳.” 『中醫大辭典』 “古代泛指有醫藥的技術和知識.”

50)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1쪽). “脩伯長, 穆得之希夷先生陳搏圖南, 蓋羲皇作此二圖, 儒者不傳而方伎家傳之, 以爲修養火候之節.”

51) 『九丘』, 『八索』, 『三墳』, 『五典』 등은 중국의 고대 문화와 관련된 古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左傳』昭公12년 두주杜注를 참조 바람.)

52)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1쪽). “評曰 庖犧畫卦之時, 先作兩大畫, 次作四中畫, 尚未可信, 矧此二圖, 誰見其作之乎? 『九丘』·『八索』·『三墳』·『五典』·六經·四書, 都無影響, 而庖犧以來, 密付單傳, 於方伎之家, 以察火候, 非怪事乎? 陳圖南非庖犧之親弟子, 則此圖未敢信矣.”

「팔괘정위도」와 「64괘방원도」는 소옹 역학의 도상이다. 정약용은 논평에서 그 도상의 전승과정인 진단陳搏(872~989) → 목수穆修 백장伯長(979~1032) → 이지재李之才(?~1045) → 소옹邵雍(1011~1077)에게 전승되었다고, 오징이 두 도상을 복희伏羲가 그렸으며, 유학자에게는 전승되지 않다가 방기가인 도가에서 전승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였다. 오징이 유가에는 전승되지 않고 비밀리에 도가에서 전승되었다는 주장을 정약용은 궤이한 일이라고 했으며, 진단이 전한 것을 복희의 그림이라고 본 듯이 단정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팔괘정위도」와 「64괘방원도」가 중국 고서古書인 『구구九丘』, 『팔색八索』, 『삼분三墳』, 『오전五典』과 육경사서六經四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말하였다. 이 때문에 오징처럼 비밀리에 방기가에게 전승되었다는 주장을 궤이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두 도상을 감히 믿을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약용은 고대 『주역』을 심도 깊게 연구한 학자이다. 따라서 고역의 형성과 복희의 획괘 및 작역 방법을 깊이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여러 주장과 이론 및 추론 내용을 각별히 주목해 살펴 보았다. 소옹이 제시한 팔괘차서도의 배열과 팔괘방위도, 선천형도 및 하도낙서와 그 방위의 연결, 수리가 혼합된 도상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약용은 『역학서언』·「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에서 이미 소옹의 도상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도가적 전승 과정을 거친 소옹의 도상설을 오징이 수용하고, 더불어 그것을 복희의 그림이라고 과장하여 주장한 것을 정약용은 터무니없는 설명이라고 부정 평가한 것이다.

셋째, 한역의 경팔순괘와 위팔순괘 수용(3)

③건괘乾卦는 일지일, 상지일로 경팔순괘이고, 아버지가 여섯 양의 벽괘이며 상구를 중심으로 한다. 준괘屯卦는 사지육, 상지삼으로 위팔순괘이고, 간괘艮卦가 변한 것이며 구오를 중심으로 한다.⁵³⁾

⑤수괘需卦는 위괘緯卦 사양괘로 대장괘大壯卦가 변한 것이다. 송괘訟卦는 위괘緯卦 이음괘로 둔괘遯卦가 변한 것이다.⁵⁴⁾

⑥태괘泰卦는 경괘經卦로 삼양괘이다. 비괘否卦는 경괘經卦로 삼음괘이다.⁵⁵⁾

위의 오징 해석을 보면, 건괘를 일지일一之一, 준괘를 사지육四之六으로 표현하고, 경팔순괘와 위팔순괘의 표현으로 괄호를 해석하고 있다. 소옹은 괘서卦序로서 일건천一乾天, 이태택二兌澤, 삼리화三離火, 사진뢰四震雷, 오손풍五巽風, 육감수六坎水, 칠간산七艮山, 팔곤지八坤地라고 하였다. 오징은 이를 따라서 건괘(䷀)를 일지일一之一(☰ + ☷), 준괘(䷂)를 사지육四之六(☳ + ☷)으로 표현하였다. 정약용은 이에 대하여 소옹의 구법舊法이며, 경전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해석이라고 부정 평가하였다.

이것 또한 소옹의 옛 방법이다. ‘일지일’과 ‘사지육’은 선천팔괘의

53)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1쪽). “乾, 一之一, 上之一, 經八純, 父, 六陽, 辟, 主上九. 屯, 四之六, 上之三, 緯八純, 艮變, 主九五.”

54)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需曰 緯, 四陽, 大壯變. 訟曰 緯, 二陰, 遯變.”

5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泰曰 經, 三陽. 否曰 經, 三陰.”

순서이다. 일건천, 사진뢰, 육감수는 그러므로 건괘의 1과 1이고, 준괘는 4와 6이며, 나머지도 모두 이에 준거한다고 했다. 이것은 경전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⁵⁶⁾(정)

이 밖에도 오징은 건괘를 경팔순괘, 준괘는 위팔순괘라고 했으며, 수괘需卦는 위괘, 태괘泰卦와 비괘否卦는 경괘라고 하였다. 한대 경방의 역학이론에는 ‘팔순오세지괘’가 있는데, 그는 64괘를 건괘로부터 귀매괘로 마치는 그림을 그리고, 이를 팔순오세지괘로 설명하였다. 경방은 팔궁괘를 팔순괘 혹은 상세上世라고 부르며, 팔순괘의 각 궁괘가 아래의 7괘를 통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솔 받는 7괘를 1세世, 2세, 3세, 4세, 5세, 유혼遊魂, 귀혼歸魂이라고 칭하였다. 오징은 『경씨역전』에 있는 “역에는 4세가 있으니 1세와 2세는 지역地易이고, 3세와 4세는 인역人易이며, 5세와 팔순은 천역天易이며, 유혼과 귀혼은 귀역鬼易이다.”⁵⁷⁾라고 인용하면서 경팔순괘와 위팔순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경방 역학의 팔순괘가 『주역』 경전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고 판단한 정약용은 「오초려찬언론」뿐만 아니라 「육덕명석문초陸德明釋文鈔」, 「공소백일평孔疎百一評」 등 여러 역학평론에서 중국학자들의 팔순오세지괘 이론 수용을 비판하였다. 「육덕명석문초」에서는 팔순오세지괘의 순괘純卦 8괘에서 하나의 획이 변하면 1세, 두 획이 변하면 2세, 세 획이 변하면 3세, 네 획이 변하면 4세, 다섯 획이 변하면 5세라는 구조와⁵⁸⁾ 경방의 천지인귀天地人鬼를 설명한 이론이 고법에 맞지 않는

56)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권, 191쪽). “此亦邵康節旧法也. 一之一·四之六者, 先天八卦之序. 一乾天, 四震雷, 六坎水, 故乾爲一一, 屯爲四六, 余皆倣此. 此於經義, 了無相涉者也.”

57) 룡명춘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185쪽.

58) 「陸德明釋文鈔」, 『易學緒言』(『定本』 제17권, 251쪽). “鑄按 此即漢魏古法, 每一畫始變, 卽



다고 하였다. 또 「공소백일평」에서는 “『춘추전』에서 단괘위순單卦爲純, 즉 단괘만이 순괘라고 한 점에 대하여 경방의 팔순괘 가운데 진괘, 손괘, 감괘, 리괘, 간괘, 태괘의 6괘는 음양이 섞인 괘로 이 때문에 순일무잡의 뜻인 순괘가 아니라고 하였다.”⁵⁹⁾ ‘팔순八純’ 가운데 건괘와 곤괘는 순건純乾이나 순곤純坤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감坎·간艮·진震·손巽·리離·태兌괘가 중괘된 것은 음양이 혼합된 괘이기 때문에 순괘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백일평」에서 팔순괘 이론을 “역도를 어지럽혔다.”⁶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육덕명석문초」에서는 팔순괘 이론을 황설수설한 것이며 현혹된 사람들의 눈과 귀에 족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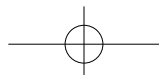
따라서 오징과 정약용 두 학자 모두 고대 『주역』의 원의를 주석하고자 한 학자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변·상·점의 세부적인 성인사도에 관한 해석과 해석방법론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정약용은 특히 한역의 해석방법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할 경우에 근거가 분명한 이론을 선

稱一世。二畫浸變，卽稱二世。至三至四，以至於五。其法了無神奇，絕無用處。乾坤二卦，其體既純，或似可取，其餘六卦，龍雜散亂，終日玩究，泊然無味，斯蓋卦變爻變之義，迷昧不明，卽經文一字解釋不得，于是學易者，徒執六十四卦，翻來覆去，橫談豎說，揔之無益於解經之事，只足以眩惑俗人之眼耳。”；료명춘 외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184~185쪽.

59) 「孔疏百一評」, 『易學緒言』(『定本』 제17권, 116쪽). “案, 所謂‘八純’者, 乾·坤·坎·離·震·巽·艮·兌之重卦也. 純乾·純坤謂純, 可矣. 其餘六卦, 陰陽錯雜, 何名純乎? 唯『春秋傳』, 稱‘純離爲牛’. 彼以單卦爲純, 非重卦也. 總之, 八卦雖爲物象之所本, 既成重卦之後, 了無尊重之休, 乾·坤·坎·離, 猶以其顛倒, 皆同之. 故爲之綱紐, 而震·巽·艮·兌, 雜於衆衍之中, 無所別異.”

60) 「孔疏百一評」, 『易學緒言』(『定本』 제17권, 116쪽). “先儒猶憶八卦, 時事欲尊而別之, 名之曰八純. 皆於『易』例疏舛矣.”

61) 「陸德明釋文鈔」, 『易學緒言』(『定本』 제17권, 251쪽). “乾·坤二卦, 其體既純, 或似可取. 其餘六卦, 龍雜散亂, 終日玩究, 泊然無味. 斯蓋卦變·爻變之義, 迷昧不明, 卽經文一字解釋不得. 於是學『易』者, 徒執六十四卦, 翻來覆去, 橫談豎說. 揔之無益於解經之事, 只足以眩惑俗人之眼耳, 今所不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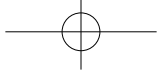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경전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팔순괘 이론이 경방으로부터 공영달孔穎達, 육덕명陸德明, 오징吳澄 등에게 수용된 것을 ‘역학파의 이단이라서 명확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던 것이다.

이른바 경팔순, 위팔순괘는 곧 이정조의 옛 법이다. 오징은 건, 곤, 감, 리, 진, 간, 손, 태의 8괘를 겹쳐서, 그것을 ‘경팔순’이라고 불렀다. 준, 몽, 가인, 규, 건, 해, 혁, 정, 리, 대과, 중부, 소과의 12괘는 ‘위팔순’이라고 부르며 12개의 벽괘는 그것을 ‘벽辟’이라고 불렀다. 나머지 여러 괘는 모두 벽괘에서 변함을 받으나, 오직 경팔순괘만 홀로 그것을 존송해서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라 칭하며 변화를 받지 않는다. 또 이른바 위팔순괘는 별도로 감, 리, 진, 간, 손, 태괘로부터는 변화를 받지만, 벽괘로부터 변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역학 학파의 이단이라서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⁶²⁾(정)

오징이 상지일, 상지삼으로 괘를 표현하고, 위팔순괘로 해석한 것을 정약용은 “역설이 단절되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책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했고, “2천년을 내려오며 『역』의 괘를 희롱거리가 된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종류”라고 혹평하였다. 그러면서 경괘經卦라고 한 근거가 무

(62)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2쪽). “且所謂經八純·緯八純, 即李鼎祚旧法也. 吳氏以爲乾·坤·坎·離·震·艮·巽·兌八重卦, 名之曰經八純. 屯·蒙·家人·睽·蹇·解·革·鼎·頤·大過·中孚·小過十二卦, 名之曰緯八純, 而十二辟卦, 名之曰辟. 其餘諸卦, 皆受變於辟卦, 唯獨經八純之卦, 尊之曰父母男女, 而無所受變. 又其所謂緯八純之卦, 別自受變於坎·離·震·艮·巽·兌之等, 而不受變於辟卦, 此是『易』家之異端, 不可不辨明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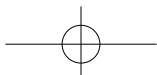
엇인지를 물었다. 말하자면 한역의 이론을 수용에 있어서 정밀한 판단과 경전을 근거로 한 비판적 사고와 안목이 중요함을 일깨운 것이다.

상지일, 상지삼이 변역變易과 대가 되는 것은 하나의 괘가 각각 하나의 괘가 된다.【乾·坤, 坎·離, 頤·大過, 中孚·小過】. 반역反易이 대가 되는 것은 두 개의 괘가 하나의 괘를 셈해 그친다.【전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까닭임】 그러므로 『상경』 18괘, 『하경』 18괘이다. 그러므로 준괘, 몽괘 두 괘는 나란히 상지삼이라고 하니, 이것을 이른바 36궁이라고 한다.⁶³⁾(정)

‘위팔순’라고 말한 12괘는 다른 뜻이 있지 않다. 단지 이양이음괘를 취해서 8개의 중괘와 4개의 벽괘를 제거하고, 건괘, 곤괘가 서로 섞인 괘에 이르렀다.【升, 萃, 晉, 明夷, 無妄, 大畜, 需, 訟괘 등 8괘】 여섯 자녀의 괘를 순하게 한 것【여섯 남녀는 서로 섞인 것】, 이것을 이름 하여 위팔순이라 부르고, 여섯 자녀의 중괘에서 변함을 받는다고 외람되게 칭했다. 역설이 단절되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책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것을 일러 여섯 개의 순괘라고 하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팔순이라고 하는가? 2천년을 내려오며 『역』의 괘들이 희롱거리가 된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종류이다.⁶⁴⁾(정)

63)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1~192쪽). “上之一·上之三者, 變易爲對者, 一卦各爲一卦.【乾·坤, 坎·離, 頤·大過, 中孚·小過】 反易爲對者, 二卦止數一卦.【顛倒用之故】 故上經十八卦, 下經十八卦也. 故屯·蒙二卦, 並雲上之三, 此所謂三十六宮也.”

64)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2쪽). “案 此所謂緯八純十二卦, 非有他義. 只取二陽二陰之卦, 除去八重卦·四辟卦及乾坤相雜之卦,【升·萃·晉·明夷·無妄·大畜·需·訟 等八卦】 以純乎六子之卦,【六男女相雜者】 名之曰緯八純, 而猥稱受變於六子之重卦. 易說之絕無意味, 未有甚於是書者也. 謂之六純, 猶之可也, 何以謂之八純乎? 二千年來易



오징 역학에서는 태泰, 비否, 기제既濟, 미제未濟, 함咸, 항恒, 손損, 익益괘 등의 8괘를 ‘경괘’라고 불렀다. 이 4개의 괘가 천, 지, 수, 화로 뇌, 풍, 산,택과 교역, 번역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경괘라고 부르니, 무엇이 근거인가?⁶⁵⁾(정)

넷째, 양괘와 음괘의 명칭 문제(5)

오징은 수괘需卦를 사양괘四陽卦, 송괘訟卦를 이음괘二陰卦⁶⁶⁾라고 칭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명칭이 한유漢儒부터 잘못된 전승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계사전」을 근거로 할 때 수괘와 송괘의 정확한 명칭이 모두 이음괘가 되기 때문이다.

수괘需卦(䷄)와 송괘訟卦(䷅)는 모두 이음괘이다. 『역』에서 사례는 적은 효를 중심으로 한다.【「대전」에서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라고 하였다.】 이음괘는 본래 두 어미(母: 陰)를 갖추었는데, 각각 하나의 어미를 취했으니 또한 소략하다. 이것은 한유로부터 이래로 전승이 잘못됨이 이와 같다.⁶⁷⁾

卦爲戲玩之物, 皆此類.”

(6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吳氏之『易』, 又以泰·否·既濟·未濟·咸·恒·損·益等 八卦, 名之曰經卦. 此四卦, 爲天·地·水·火·雷·風·山·沢之交易·變易, 則有之矣. 謂之經卦, 何所捫矣?”

(66) 陰: 新朝本에는 ‘臨’으로 되어 있으나 『易纂言』에 따라 바로잡는다.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67)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需·訟, 均是二陽之卦. 易例少者爲主也. 【「大傳」云: “陽卦多陰, 陰卦多陽.”】 二陽之卦, 本具二母, 各取一母, 亦疎矣. 此自漢儒以來, 沿誤如此.”

「계사전」에서는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라고 명시하였다. 말하자면 적은 효를 중심으로 양괘, 음괘라는 명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괘(☵)와 송괘(☶) 모두 사양이음괘이지만, 적은 수의 효는 음효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이음괘가 된다. 정약용의 설명은 옳다. 이에 정약용은 “한유로부터 이래로 물길이 잘못됨이 이와 같다.”⁶⁸⁾라고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음괘, 양괘의 명칭은 팔괘인 육자괘 六子卦의 명칭과 상징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팔괘 역시 적은 수의 효를 토대로 양괘를 장남(☳), 중남(☲), 소남(☱), 음괘를 장녀(☴), 중녀(☴), 소녀(☶)를 상징한다.

다섯째, 괘변설의 문제(4), (24)

오징의 태괘 泰卦 육오 ‘제을귀매’ 해석에서 정약용은 ‘오징이 아직 괘변설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부정 평가하였다. 오징의 괘변설은 『역찬언외익』, 『원서 原序』에 나타난다. 그는 “건곤괘가 변하여 육자괘와 십벽괘가 되고, 육자괘와 십벽괘가 변하여 사십육괘가 된다.”⁶⁹⁾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건괘, 곤괘와 육자괘를 비롯해 십벽괘를 포함한 18괘가 벽괘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18개의 벽괘에서 나머지인 46괘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징의 괘변설이다. 이처럼 육자괘가 괘변을 일으키는 주체인 벽괘라는 오징의 설명은 주희의 괘변설과도 다르며, 또한 정약용의 괘변설(=推移說)과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설명이다.

(68)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3쪽). “此自漢儒以來, 沿誤如此.”

(69) 『四庫全書』經部, 『易纂言外翼』, 『原序』. “乾坤變而爲六子十辟, 六子十辟變而爲四十六卦, 述卦變第三.”(임재규, 「오징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집, 온지학회, 2017, 197쪽)

참고로 『주역사전』에서 기록된 정약용의 괘변설인 추이설과 비교하면, 정약용은 12개월을 상징하는 12벽괘와 윤달을 상징하는 중부괘, 소과괘의 재윤괘再閏卦를 14벽괘라고 하였다. 그리고 14벽괘로부터 나머지 50개의 연괘衍卦되는 것이 괘변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오징은 18벽괘 → 46괘로 괘변이 된다고 했다면, 정약용은 14벽괘 → 50연괘로 괘변이 된다고 하였으니, 두 학자의 괘변설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정약용의 관점은 오징이 육자괘를 벽괘로 본 괘변설은 잘못이며, 역설이 단절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이른바 ‘위팔순’ 12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양이음괘에서 8개의 중괘와 4개의 벽괘를 제거해 건괘, 곤괘가 서로 섞인 괘를 취한 것이다.【升, 萃, 晉, 明夷, 無妄, 大畜, 需, 訟 등 8괘】 순괘는 육자괘로서【6남녀가 서로 섞임】 그것을 명칭하길 위팔순이라 하였는데, 외람되게 여섯 자녀의 중괘에서 변함을 받다고 칭하였다. 역설의 단절로 의미가 없어짐은 이 책보다 심한 것이 있지 않다. 그것을 육순괘라고 한다면 오히려 옳겠으나, 어찌 그것을 팔순괘라 하겠는가? 2천년 이래 『역』의 괘를 회롱거리로 삼은 것은 모두 이러한 종류이다.⁷⁰⁾

인용문에서 오징은 괘변의 주체에 ‘육자괘’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정약용은 ‘역설의 단절로 의미가 없어 해석한 책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

70)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2~193쪽). “案 此所謂緯八純十二卦, 非有他義. 只取二陽二陰之卦, 除去八重卦·四辟卦及乾坤相雜之卦【升·萃·晉·明夷·無妄·大畜·需·訟等八卦】以純乎六子之卦【六男女相雜者】名之曰緯八純, 而猥稱受變於六子之重卦. 易說之絕無意味, 未有甚於是書者也. 謂之六純, 猶之可也, 何以謂之八純乎? 二千年來易卦爲戲玩之物, 皆此類.”

다'고 혹평하였다. 정약용은 육자괘를 육순괘로 부른 것도 2천년 이래 역의 괘를 희롱거리로 삼았다고 비판함으로써 오징의 괘변설을 터무니 없는 이론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취상과 물상의 해석

오징은 취상取象 및 그 해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사辭에 포함된 많은 물상들을 훈고와 고증을 통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그 가운데 네 가지 해석사례를 채록해 논평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네 가지의 해석사례란 소축괘小畜卦 괘사 '밀운불우密雲不雨'(21), 예괘豫卦 구사 '합잠盍簪'(27), 서합괘噬嗑卦 괘사 '이용옥利用獄'(29), 환괘渙卦 구이 '분기계奔其机'(33)의 해석이다. 정약용은 다음의 해석이 잘못이라면서 부정 평가하였다.

㉑ 소축괘小畜卦 괘사

‘密雲不雨(빽빽한 구름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

오징 : “감괘坎卦의 아래 획이 꼭 막히어 통하지 않으니, 구름이 빽빽한 것을 상징한다.”⁷¹⁾

정약용: 소축괘小畜卦는 왜괘夬卦로부터 왔으니, 옛적의 태괘兌卦가 이제는 손괘巽卦가 되니, 모두 빽빽한 구름이다.⁷²⁾

㉒ 예괘豫卦 구사 ‘盍簪(비녀를 합한다)’:

71)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小畜, 密雲不雨, 解曰 坎之下畫, 窒塞不通, 象雲之密.”

72)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7쪽). “案 小畜自夬來, 昔之兌, 今之巽, 皆密雲也.”

오징: “합盍은 합하다의 뜻이고, 잠簪은 비녀(笄)이니, 머리카락을 한데 모으는 까닭이다. 하나의 강이 여러 유의 가운데를 뚫었으니, 하나의 비녀가 여러 머리카락을 관통한 상이다.”⁷³⁾

정약용: 패상(䷖)은 진실로 그러하나 둘을 합하는 형태가 없는데, 어찌 이를 일러 합잠이라 하겠는가?⁷⁴⁾

㉔ 서합괘噬嗑卦 패사 ‘利用獄(옥을 씹이 이롭다)’:

오징: “리離의 체는 가운데가 비어서 감옥(獄)의 상이다.”⁷⁵⁾

정약용: 옛사람 다수가 감坎괘를 감옥이라고 했으니, 큰 잘못이다. 리離가 결과적으로 옥이라니!⁷⁶⁾

㉕ 환괘渙卦 구이 ‘奔其机(그 책상에 달아나면)’:

오징: “감坎은 수레(輿)이고, 2효는 감坎의 수레 가운데 있으니, 수레 가운데 있는 책상과 같다. 이것은 환渙이 흩어질 때이고, 수레 가운데 책상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무릇 타서 편안한 수레는 궤軌를 사용한다.”⁷⁷⁾

정약용: 이것 또한 억지 해석이다.⁷⁸⁾

73)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豫 九四, 盍簪. 解曰 盍, 合也. 簪, 笄也, 所以收髮. 一剛貫衆柔之中, 一簪貫衆髮之象.”(笄: 新朝本에는 ‘笄’으로 되어 있다.)

74)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評曰 卦象固然, 而無兩合之形, 何以謂之盍簪?”

75)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噬嗑. 利用獄. 解曰 離體中虛, 獄之象.”

76)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198쪽). “案 古人多以坎爲獄, 大非也. 離果爲獄!”

77)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200쪽). “渙. 奔其机. 解曰 ‘坎爲輿, 二在坎輿中, 如車中之有机.’ 是爲渙散之時, 而奔就其車中之机也. 凡乘安, 車用机.”

78) 「吳草廬纂言論」, 『易學緒言』(『定本』 제17책, 200쪽). “評曰 此亦強解.”

인용문에서 물상은 뺨뺨한 구름, 합잠盍簪의 비녀, 옥獄, 궤机이다. 정약용은 위의 인용문처럼 오징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 궤机의 물상 해석은 억지 해석이라고 하였다. 『주역사전』에서 정약용이 환괘渙卦에서 궤机에 대하여⁷⁹⁾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 궤机라고 하였다. 반면 오징은 수레 가운데 올려진 것을 궤机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두 학자 모두 사辭뿐만 아니라 물상의 해석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세부적인 견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오징의 여러 물상 해석을 채록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결론

원대의 오징 역학은 고려 말기부터 유입되었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가운데 특히 오징의 『역찬언』의 해석사례를 논평한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은 단일한 역학평론으로 주목된다. 〈표 1〉에 나타나듯이 34종류의 오징 해석사례에 대하여 정약용은 긍정 평가 6회, 복합 평가 3회, 보류와 궤의 평가 3회, 부정 평가 22회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인식과 평가를 드러냈다.

79) 환괘渙卦(䷺)가 효변하여 관괘觀卦(䷓)가 된 것이다. 궤机 자는【祭享 때 쓰는 기구인】궤几자와 통하니,【궤는 안궤案几임】희생을 자를 때 쓰는 안궤案几이다. 감坎의 견고한 나무는 위의 곤坤의 고기를 담으니,【하괘는 본래 坤이다】그 상이 궤机이다. 간艮의 종묘 아래에【3·4·5의 호괘】곤坤의 소가 화살을 맞고【乾의 화살이 와서 맞힘】안궤가 이미 놓여 있으니, 소가 이제 죽은 것이다. 구이 효가 이미 효변하여 감坎의 강이 흠어지게 되면【2효는 지금 터짐】곤坤의 소가 다시 살아나서【하괘는 이제 坤】손뚱으로써 도망가게 되니【상괘에 뚱이 있음】‘渙 奔其机’이다.【소가 달아나는 것을 奔이라 하고 犇과 통한다】책상 위의 동물(고기)이 궤机로부터 달아난 것으로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다. 만일 희생에 관한 점을 친 것이라면 쓸 수 없는 경우이다.(정약용 저, 방인·장정욱 역, 『역주 주역사전』(권6), 소명출판, 2007, 362~363쪽.)

정약용이 긍정 평가한 사례는 첫째, 태괘泰卦 육오 ‘제을귀매’의 호체법으로, 정약용은 이를 성원하였다. 둘째, 건괘乾卦 패사 ‘원형이정’과 진괘震卦 육이 ‘억상괘’의 해석. 셋째, 건괘乾卦 초구 ‘잠룡’, 비괘否卦 구오 ‘기망기망계우포상’에서 용龍과 포상苞桑의 사·상 해석. 넷째, 비괘比卦 패사 ‘불영방래’의 해석에 대해서 “뜻이 매우 좋다.”, “뛰어나 현명함이 지극하다.”, “이 뜻이 지극히 옳다.” 등의 긍정 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약용이 오징의 호체법을 긍정해 고역古易의 해석법과 합치되는 이론이라고 보았고, 훈고와 물상 해석 가운데 의미 있는 해석을 채록해 긍정 평가하였다.

정약용이 부정 평가한 22회의 해석사례는 <표1>에 나타난다. 이를 다음의 10가지 내용으로 요약하면, 첫째 역학 개념: 음·양의 획, 태극·양의·사상·팔괘의 형성, 획과 효, 9와 6 등의 개념 이해. 둘째, 소옹의 「팔괘정위도」, 「64괘방원도」의 도상설. 셋째, 소옹의 작역 방법과 괘 형성설의 가일배법. 넷째, 한역의 경팔순괘와 위팔순괘 수용. 다섯째, 괘변설의 벽괘 설정. 여섯째, 사양괘·이음괘의 명칭 문제. 일곱째, 역사의 훈고, 자의. 여덟째, 고증 해석으로 사辭와 개자. 아홉째, 협운과 유동의 「독역요지」. 열째, 취상과 물상 해석의 이해 등 많다. 정약용은 오징의 괘변설을 비롯해 문제가 있는 다양한 해석사례들을 채록해 오류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조목조목 논평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소옹 역학을 수용한 오징의 ‘역유태극 시생양의’의 해석과 가일배법의 적용, 팔괘의 순서, 「팔괘정위도」, 「64괘방원도」 등의 도상설을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괘변법에서 육자괘를 벽괘로 주장한 이론을 잘못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의 오징 역학에 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소옹 역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괘변설에서는 ‘역설의 단절’이라 할 만큼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경팔순괘·위팔순괘의 수용을 ‘역학과의 이단’으로 평가했으며, 경문의 세부적인 해석 가운데 চাল운과 유동 등의 「독역요지」 18원칙을 아직 깊이 연구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탄식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에서는 오징의 호체법을 주목해 성원함으로써 고법의 해석임을 강조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사辭·상象의 여러 해석을 긍정 평가함이 두드러진다. 반면, 오징의 괘변설을 비롯해 주희 역학을 추존하는 과정에서 주희와 같이 소옹의 도상설과 선천역설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용함은 오징 역학의 커다란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역에서의 금문역(金文易)의 문제가 있는 이론수용과 사辭와 상象에 관한 훈고와 고증에서도 역지의 해석이나 개자, 혹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론식의 주석을 경계해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은 오징 역학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의미가 크다.

그리고 중국학자들이 주로 오징 역학을 ‘주희 역학을 추존한 상학’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정약용은 오징이 사·변·상·점의 세부적인 해석과 고대의 해석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이론을 주목해 논하였다. 여기서 소옹역학을 수용한 한계를 논하고, 괘변, 효변, 호체, 물상 등의 「역리사법」과 「독역요지」 18원칙과 관련된 세부적인 해석을 논평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오징 역학을 최고의 역학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고역을 회복하는 과정에 근접하나 사·변·상·점의 해석에 아직 미비한 해석이 있다고 평가했음도 파악할 수 있다.

정약용은 오징을 비롯해 중국역학사 전반을 논평함으로써 자신의 중국역학 평가를 드러내고 역학의 학문적 전승에 있어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의 「오초려찬언론」을 비롯한 『역학서언』에 담긴 중국역학평론의 평가는 현대 중국학자들의 문헌에서 이

루어진 평가보다 200여 년 전에 이루어졌고, 조선 유학자의 중국역학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역학사에서는 중국역학에 관한 비판적인 주역해석학으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23년 2월 28일, 심사확정일 2023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11일)

참고문헌

원전

『周易』

『易纂言』

『京房易傳』

『四庫全書』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丁若鏞 著, 방인·장정욱 역, 『易註 周易四箋』 전8권, 소명출판, 2012.

吳 澄, 『易纂言』 (『欽定四庫全書本』), 影印古籍, 浙江大學圖書館本, 1988.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1996.

『四庫全書』 文淵閣本 영인본, 驪江出版社, 1988.

『欽定四庫全書總目』(8冊), 藝文印書館, 2004.

단행본과 논문

朱伯崑 著,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전5권, 소명출판, 2012.

廖名春·康學偉·染韋弦 著,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이난숙,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 비판 연구—『易學緒言』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학권, 「원대 역학 연구」, 『범한철학』 제10권, 범한철학회, 1995.

——, 「원대 역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주역연구』 제1집, 한국주역학
회, 1996.

-
- 방 인, 「다산의 양호작괘법」, 『다산학』 3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7.
- 이범학, 「오징사상연구서설—원대 리학과 오징」, 『한국학논총』 제30집,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8.
- , 「오징의 역학과 소용」, 『한국학논총』 제31집,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9.
- 이기훈, 「권근 역학과 원대 오징 역학의 관련성 연구」, 『철학연구』 제92집, 대한철학회, 2004.
- 임재규, 「오징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제51집, 온지학회, 2017.
- , 「정약용과 오징의 효변론에 내포된 상관관계와 원류문제」, 『종교와 문화』 제25집, 서울대종교문화연구소, 2013.
- 이창일, 「다산 효변설의 역학사적 검토」, 『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

국문요약

이 글은 원대元代 오징吳澄 역학에 관한 조선유학자들의 관심과 정약용丁若鏞의 인식 및 구체적인 역학 평가의 내용을 해명한 논문이다. 임천오씨臨川吳氏(吳澄)의 역학에 관한 논의는 고려 말기부터 시작해 조선왕실과 유학자들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특히 정약용은 오징의 『易纂言』에서 34종류의 해석사례를 채록해 『易學緒言』·「吳草廬纂言論」으로 역학평론을 저술하였다. 여기에는 오징의 사辭·변變·상象·점占의 해석이 망라되어 있으며, 각각의 해석사례를 정약용은 긍정 평가 6회, 부정 평가 22회, 복합 평가 3회, 보류와 궤의 평가 3회로 논평함으로써 자신의 역학적 인식과 해석 관점을 드러냈다.

정약용의 긍정 평가는 ① 태괘泰卦 육오 ‘帝乙歸妹’의 호체법 해석으로 고법古法에 합치되는 명론名論이라고 성원하였다. ② 건괘乾卦 ‘元亨利貞’과 진괘震卦 ‘億喪貝’의 해석은 “뜻이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③ 건괘乾卦 ‘潛龍’의 용龍과 비괘否卦 ‘其亡其亡繫于苞桑’의 포상苞桑 해석은 순구가荀九家보다 해석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④ 비괘比卦 ‘不寧方來’의 해석은 지극히 옳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22회의 부정 평가 사례는 다음의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역학개념: 음·양의 획, 태극·양의·사상·팔괘의 형성, 획과 효의 의미, ② 「팔괘정위도」, 「육십사괘방원도」의 도상설 근거, ③ 소옹의 작역 방법과 괘 형성설, ④ 한역의 경팔순괘와 위팔순괘 수용 문제, ⑤ 괘변설과 효변설, ⑥ 사양괘·이음괘 등의 명칭 문제, ⑦ 역사易辭의 훈고, ⑧ 고증 해석,

⑨ 찰운察韻(叶韻)과 유동留動 등 독역요지의 해석, ⑩ 취상과 물상에 관한 해석 오류이다. 정약용은 오징이 소옹 역학(수리설과 도상설, 加一倍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음을 강력히 비판했으며, 한역에서는 경팔순괘·위팔순괘의 수용을 비판하고, 육자괘六子卦를 벽괘라고 주장한 오징의 괘변법이 고법과 맞지 않는 괘변론이라고 일축하였다. 더불어 험운과 유동 등의 세부적으로 해석조차 하지 못한 오징 역학을 깊이 탄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오징 역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로써 송역과 한역 이론 가운데 근거가 없는 역학이론을 취사선택에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또한 오징이 물상 해석을 위하여 훈고·고증함에도 엄밀성이 부족한 해석을 비판하고, 개자 및 괘변·효변·호체의 해석법에 관해서는 엄밀히 평가하였다. 따라서 오징의 호체법을 명론으로 인정해 성원했지만, 괘변법은 고역古易과 다른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독역讀易의 구체적인 해석법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보다는 오징 역학의 한계를 지적해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오징 역학에 관한 정약용의 인식과 평가는 2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한국유학자에 의한 중국역학 평가로서 한국역학사에서 그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정약용, 오징吳澄, 『역찬언』, 『역학서언』, 「오초려찬언론」.

Abstract

Jeong Yak-yong's Perception and Evaluation about the Yixue(易学) of Wu Cheng of Yuan Dynasty⁸⁰⁾

Lee Nan-sook

Academic Research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Jeong Yak-yong(丁若鏞: 1762-1836) in his books *Yixue Shuyan*(『易學緒言』) and “Wucaolu Zuanyan Lun”(『吳草廬纂言論』), reviewed 34 annotations which it were collected and recorded in Wu Cheng(吳澄: 1249-1333)'s *Yizuanyan*(『易纂言』).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ontents of 34 annotations commented by Jeong Yak-yong, and based on this,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e thought on the changes and the meaning of academic history.

First, the contents of 34 types of annotation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positive evaluation, three types of positive and negative composite evaluation, three types of reserving & saving the question evaluation, and 22 types of negative evaluation. The criteria for this classification were the formation of ‘A fourfold to the Holy Sages(聖人四道)’ i.e., ‘the judgments(辭)’, ‘the changes(變)’, ‘the images(象)’, ‘the divinatory(占)’ as specified in *The book of changes* and “The

8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5A16082242).

Great Commentary”. It was confirmed that Jeong Yak-yong’s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epidemiological theories, and annotations of *The book of changes* were included.

Next, six contents evaluated positively by Jeong Yak-yong were examined. Wu Cheng studied the ancient Analytical Methodology, there’s a clear and famous interpretation theory(名論). Therefore, Jeong Yak-yong evaluated it as “there is a theory of fame that conforms to the Gu Fa(古法: an important reference to evaluating and analyzing of art works in classic). The contents of Jeong Yak-yong’s positive evaluation are as follows. In *Yizuanyan* Wu Cheng accepted Song Yi(宋易)’s the theory of diagram images(圖象說) and Han Yi(漢易)’s the image number theory(象數學說), as well as Exegesis and textual research, adapting character theories, also incorporated the ancient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of the changes of trigram(卦變), the changes of line(爻變), Hu Ti(互體), and the imaging theory(取象說) of thing’s image(物象).

And the contents of the 22 negative evaluations were analyzed into the following 10. ① The concept of Yixue : the formation of the line of yin, the line of yang, Tai Ji, two Forms, four images, the Eight Diagrams, and the Meaning of the row(劃) and the line(爻). ② The theory underlying the theory of diagram images such as Eight Diagrams Orthogonal Bitmap(“八卦正位圖”), 64 Trigrams Square Chart(“六十四卦方圓圖”). ③ Shao Yong(邵雍)’s method of making change(作易) and the theory of hexagram formation. ④ Accepting the Han Yi(漢易)’s Eight Pure Trigrams(經八純卦) and Eight fake

Trigrams(緯八純卦). ⑤ The name of the change of trigram's theory and the change of the line's theory. ⑥ The name of the four Yang Trigrams(四陽卦) and two Yin Diagrams(二陰卦). ⑦ The Exegesis of the judgments of changes. ⑧ Textual research and interpretation. ⑨ Xie Yun(察韻: 叶韻) and the gist of reading the change(讀易要旨) about Liu Dong(留動). ⑩ Obtaining the images and interpretation of thing's image. And so on.

In conclusion, Jung Yak-yong considered that Wu Cheng's *Yizwanyan* has some famous interpretation theory that are consistent with some Gu Fa(古法) in ancient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but there is a limit to accepting unfounded theories in many areas, and lacks rigor in argument.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there were insufficient parts in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for ancient Yi jing(古易). It can be said that Jeong Yak-yong's the thoughts on the Changes pioneered a new field in the history of Yixue with Jingxue(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Exegesis.

And 200 years ago, Jeong Yak-yong's the thoughts on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of Wu Cheng's the theory of Yixue are not a follow-up to Chinese Yixue, but a result of his original interpretation of Jingxue, this can be said to have a great academic significanc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east asian history of Yixue.

Key Words | Jeong Yak-yong, Wu Cheng, *Yizwanyan*, *Yixue Shuyan*, "Wucaolu Zuanyan Lun".